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생명의 체험의 넷째 단계에 들어감으로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름

(목요일 — 오후 집회)

메시지 3

생명의 체험의 넷째 단계

(2)

승천을 인식함

성경: 행 2:36, 히 2:9, 4:14-15, 7:26, 12:2, 엡 1:19-23

I. 사람-구주의 승천은 그분께서 창조와 육체 되심과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으로서, 창조주와 피조물로서, 구속자와 구주와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하늘에 속한 그분의 직무에 취임하신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행정을 집행하고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II. 우리는 주님의 승천의 객관적인 방면을 보아야 한다.

A. 주님은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 쓰셨다 — 히 2:9.

1. 영광은 예수님의 인격과 관련된 광채이고, 존귀는 예수님의 가치와 관련된 소중함이다 — 뱀전 2:7.
2. 그리스도는 상태에 있어서 영광스러우시고, 지위에 있어서 존귀하시다. 그분은 모든 왕들과 통치자들 위에 계신다. 이것이 그분의 존귀이다.

B. 주님의 승천은 하나님의 행정을 위해 그분을 보좌에 앉으시게 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지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라고 말한다.

1.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빛이 등 안에서부터 등을 통하여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우주의 행정을 집행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 계 22:1, 3, 비교 21:23.
2. 그리스도는 이제 보좌에 계시면서 온 우주의 행정을 집행하고 계신다. 그분은 유일한 행정관, 곧 모든 왕의 왕과 모든 주인의 주님이시다. 그분은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시다 — 계 1:5, 17:14, 19:16.
3. 그리스도께서 행정을 집행하시는 것은 우주와 연관된 것이지만, 그분께서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시는 것은 그분의 재생산을 위해 그분 자신을 번식시키심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귀결될 그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다 — 비교 행 5:31.

C.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 두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행 2:36) 이 구절에서 ‘되게 하셨습니다’는 ‘취임시키셨습니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승천 안에서 그리스도를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에 취임시키셨다.

1. 사람-구주는 그분의 승천 안에서 주님이 되시어 만물을 소유하셨다. 그분은 이제 온 우주와 하나님의 선민과 모든 긍정적인 사물들과 일들과 사람들을 소유한 주님이시다.

2. 사람-구주는 그분의 승천 안에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받은 분이신 그리스도(히 1:9)가 되시어 하나님의 위임을 수행하신다.
- D. 우리는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하나이다(엡 2:6). 결과적으로 우리는 부활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을 가지며, 승천 안에 있는 권위 또한 가진다. 우리는 우리의 주님을 접촉할 때, 그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인식하고 그분의 신분과 지위와 직무를 인식해야 한다.

III. 우리는 주님의 승천의 주관적인 방면을 보아야 한다 — 비교 시 91:1, 아 4:7-8, 6:10.

- A. 그리스도는 그분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승천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갇혀 있는 곳인) 음부와 (타락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슬러 움직이고 있는 곳인) 땅과 (사탄과 그의 어둠의 세력이 하나님을 거슬러 행동하고 있는 곳인) 공중과 (사탄이 갈 수 있는 곳인 — 엡 1:20-21, 4:8-10, 히 7:26, 욥 1:6-12상, 2:1-6) 모든 하늘들을 초월하셨다. 그리스도는 승천 안에서 하늘들을 통과하셨기 때문에(히 4:14) 이제는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라(9:24) 하늘들보다 더 높이(7:26),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에 계신다(엡 4:10).
- B.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3절까지는 승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흐르는 어떤 전달이 있음을 계시한다. 22절은 “하나님은 ...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셨습니다.”라고 말한다. ‘교회에게’라는 말은 승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그분의 몸인 교회에게 흐르는 전달을 보여 준다.
1. 하나님은 승천하신 그리스도께 만물을 다스리는 머리의 권위를 큰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무언가가 되게 하셨는데, 그것은 교회를 향한 것이다. 즉 그것은 교회에게 전달되며 교회는 그것을 함께 나눈다.
 2.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음의 네 단계로 그분의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셨음을 보여 준다. 첫째는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고, 둘째는 그분을 하늘들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신 것이고, 셋째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아래 복종시키신 것이며, 넷째는 그분을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신 것이다.
 3. 그리스도의 능력, 곧 부활의 능력과 승천의 능력과 정복의 능력과 머리가 되시는 능력은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 그리고 ‘교회에게’ 주어진다. 머리아신 그리스도께서 도달하시고 획득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의 몸인 교회에게 전달된다 — 엡 1:19, 22-23.
 4. 우리는 신성한 전달을 믿어야 할 뿐 아니라 매일 그것을 체험해야 한다. 교회는 높여지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전달 안에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전달로 교회는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도달하신 모든 것,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 초월하여 앉으신 것, 만물을 그분의 발아래 복종시키신 것, 만물 위에 머리의 권위가 되신 것에 참여한다.
 5. 신성한 전달은 한 번만에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이 전달을 계속해서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승천의 완전한 의미와 함께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교회 안으로 지속적으로 넣어 주는 전달이다. 신성한 전달을 통해 우리는 하늘들에 계신 그리스도와 합하게 된다. 우리가 정결한 그릇이고 기꺼이 자신을 열기만 하면, 이러한 전달은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날 것이다 — 엡 2:6.
 6. 우리는 단순히 우리 자신을 열고 이렇게 말씀드려야 한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제 자신을 당신께 드립니다. 주님, 당신을 위해 저의 전 존재를 비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이러한 신성한 전달을 체험하고 누리게 될 것이다.

- C. 신성한 전달의 위대한 목표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는 것이다(엡 1:10). 모든 시대에 걸친 하나님의 모든 시대적인 안배를 통하여,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행정과 경륜이다.
1. 이렇게 한 머리 아래 통일되는 것은 우주적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 사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이 사람의 몸은 교회이다.
 2. 하나님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로 구성된 우주적인 한 사람을 통하여 만물을 한 머리 아래 통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몸의 지체들인 우리는 머리의 권위 아래서 몸의 하나를 지킬 필요가 있다. 이 하나가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이자 통로이자 영역이다.
 3. 온 창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그때에는 모든 분열과 나뉘임이 없어질 것이고, 인류뿐 아니라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분 아래 통일될 것이다 — 롬 8:19-22.
 4. 사람의 관점에 따르면, 온 우주를 한 머리 아래 통일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전혀 없다 — 막 10:27.
- D. 승천 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충만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분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 골 1:18, 엡 1:23, 3:19.
1. 머리와 몸은 하나이고 우주적인 한 사람을 이룬다. 이 신성한 일에는 공간의 요소도 없고 시간의 요소도 없다. 몸은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영 안에서 머리와 하나이다.
 2. 신성한 관점에 따르면 우리는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하나이고, 그분의 승천은 또한 우리의 승천이다(엡 2:6). 바로 이 승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한다. 초월하신 그리스도는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시기 때문에(골 2:9), 그분의 초월하는 전달에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리스도의 충만이 되게 하는, 삼일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분배가 포함되어 있다(엡 1:22-23, 3:19, 8).
- E. 승천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또한 하늘들에서 대제사장이 되시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돌보신다. 승천 안에서 그리스도는 그분의 제사장 직무에 취임하셨다 — 히 2:17-18, 4:14-15, 시 110:1-4, 히 5:6, 7:26.
1. 한 면에서 그리스도는 교회들을 위해 하늘들에서 중보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이시다(히 7:25-26, 롬 8:34). 또 다른 면에서 그리스도는 교회들 안에서 움직이시며 교회들을 돌보시는 대제사장이시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그리스도는 발까지 닿는 그분의 옷, 곧 제사장의 의복이 보여 주듯이(출 28:33-35) 대제사장으로 묘사되신다.
 2. 요한계시록 8장에서 그리스도는 금향단에서 향을 드리는 제사장으로 계시되신다. “다른 천사께서 오셔서, 금향로를 가지시고 제단 곁에 서셨습니다. 그분은 많은 향을 받으셨는데, 그것은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향을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리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계 8:3)
 3. 구약에서 대제사장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출애굽기에 따르면, 대제사장은 자신의 두 어깨와 가슴에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이름을 지녔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이름을 지니는 것이었다 — 출 28:9-10, 12, 21, 29.
 - a. 오늘날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어깨와 가슴에 놓여 있다.

그분은 대제사장으로 하늘에 계시면서 그분의 힘으로 우리를 짊어지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 b.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그분은 “하나님에 관한 일에 있어서 긍휼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히 2:17), 곧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대제사장(4:15)이시다.
 - c. 비록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실지라도, 우리는 모두 그분께서 우리를 어떤 식으로 돌보셔야 하는지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생각과 느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것이 좋은지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판단하실 문제이다 — 롬 8:28-29.
 - d.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와 우리의 복지를 관심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갈망을 관심하신다.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은 우리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필요를 더 관심하신다.
 - e. 대제사장이신 주님은 하나님의 표현을 위해 등잔대들을 세우시며 등잔들의 심지를 손질하신다(계 1:13, 2:1). 이러한 일은 그분께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살아 있는 증거인 교회를 건축하시는 것을 포함한다.
4. 하늘들에 계신 대제사장으로서 주님은 더 나은 언약의 보증과 중보자, 곧 집행자이시다 — 히 7:22, 8:6, 9:15-17.
- a. 신약은 우리의 유업을 위한 새로운 유언이다. 여기에는 많은 유산들이 있으며, 이 모든 유산들은 교회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진 신성한 축복들이다.
 - b. 그리스도는 이 유언을 세우시기 위해 죽으셨고, 이 유언의 유산들의 실재가 되시기 위해 부활하셨으며, 이제는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진 유언의 살아 있는 집행자로서 하늘들에 계신다(사 42:6).
 - c. 신약의 모든 축복(엡 1:3, 갈 3:14)은 살아 계시고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신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에게 적용되는 유산이다.
 - d. 그리스도의 하늘들에서의 사역에는 하나의 종착지가 있는데,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께서 승천 안에서 하시는 일의 완결일 것이다.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하늘들에 계신 대제사장

그리스도는 승천 안에서, 또한 하늘들에 계신 대제사장이 되셨다. 히브리서 4장 14절은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계시니”라고 말한다. 주님은 육체 되심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셨으며,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우리로부터 하나님께 다시 가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돌보신다(히 2:17-18, 4:15). 그러므로 히브리서 7장 26절은 “이와 같이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고, 더럽혀지지 않으시고, 죄인들과 구별되시고, 하늘들보다 높아지신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적합하신 분이십니다.”라고 말한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승천 안에서 하늘들을 통과하셨다. 이제 그리스도는 다만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히 9:24) 하늘들보다 더 높고,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에 계신다(엡 4:10). 승천 안에서 그분은 그분의 제사장 직무에 취임하셨다. 땅에 계셨을 때 그분은 지금 하늘에서 행하시고 계신 것처럼 그분의 제사장 사역을 수행하지는 않으셨다.

교회들을 돌보심

요한계시록에서 그리스도가 먼저 행정관이 아닌 제사장으로 계시되어 있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은 “등잔대 사이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분께서 발까지 닿는 옷을 입으시고”라고 말한다. 한 면에서 그리스도는 교회들을 위해 하늘들에서 중보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이시다(히 7:25-26, 롬 8:34). 또 다른 면에서 그리스도는 교회들 안에서 움직이시며 교회들을 돌보시는 대제사장이시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그리스도는 발까지 닿는 그분의 옷, 곧 제사장의 의복(출 28:33-35)이 보여 주듯이 대제사장으로 묘사되신다.

요한계시록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에 관한 첫째 이상은 제사장의 옷을 입은 대제사장의 이상이다.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는 등잔대들 사이로 다니며 등잔대들을 돌보시는데, 특별히 등잔들의 심지를 손질하심으로써 등잔대들이 빛을 내는 것을 관심하신다. 그리고 나서 8장에서 그리스도는 금향단에서 향을 드리는 제사장으로 계시되신다. “다른 천사께서 오셔서, 금향로를 가지시고 제단 곁에 서셨습니다. 그분은 많은 향을 받으셨는데, 그것은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향을 보좌 앞에 있는 금 제단에 드리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계 8:3) 그러므로 1장에서 그리스도는 등잔대를 돌보시는 제사장으로 계시되시며, 8장에서는 하나님께 향을 드리는 제사장으로 계시되신다. 그리고 나서, 물론 5장에서 그분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행정관으로 계시되신다. 우주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아니라 행정관이시다. 그러나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시다. 승천하신 분으로서 그분은 지금 하늘에서 제사장으로 살아 계시고 일하시며 공급하고 계신다.

우리를 짊어지시고 붙드심

구약에서 대제사장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출애굽기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그의 양 어깨와 가슴에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이름들을 짊어졌다. “너는 마노 보석 두 개를 가져다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태어난 순서에 따라 보석 하나에 여섯 이름을 새기고, 다른 보석에 나머지 여섯 이름을 새겨라. ... 그 두 보석을 이스라엘 자손을 기념하는 보석으로 예봇의 어깨받이 위에 달아라. 아론은 그들의 이름을 두 어깨 위에 두어서 여호와가 그들을 기억하게 해야 한다.”(출 28:9-10, 12) 열두 지파의 이름들은 또한 대제사장이 입었던 금 가슴받이에 박힌 열두 보석 위에 새겨졌다. “그 보석들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에 따라 열둘이 되게 하되 그들의 이름에 따라 하고,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각자의 이름을 새겨 열두 지파를 나타내게 하여라. ...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긴 판결 가슴받이를 가슴에 달아, 여호와가 그들을 늘 기억하게 하여라.”(출 28:21, 29) 마노 보석과 가슴받이의 보석에 새긴 이름들은 대제사장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이름을 품었다는 것을 상징한다. 오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어깨 위에와 그분의 가슴에 있다. 그분은 우리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 계신다.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그분은 “하나님에 관한 일에 있어서 공흠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히 2:17)이시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이시다(히 4:15).

비록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실지라도, 우리는 모두 그분께서 우리를 어떤 식으로 돌보셔야 하는지에 대한 나뉠대로의 생각과 느낌을 갖고 있다. 한 예로, 우리 모두는 건강하기를 원하며 오래 살기를 원한다. 우리는 백 세까지 산다 할지라도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백 세가 되

면 백 이십 세가 되기를 바랄 것이다. 그러나 종종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방법은 우리가 바라는 것과는 다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왜 당신은 저의 건강을 돌보시지 않습니까? 저는 병들었고 치료 받기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치료하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왜 당신은 제 말을 듣지 않으십니까?”라고 불평의 말을 할 수 있다. 주님은 치료하심에 대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다. 어떤 사람을 돌보실 때 주님은 그 사람이 그 병으로 죽는 것을 허락하실 수 있다. 우리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아신다. 그분은 땅에서 우리의 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생활에 관하여 우리의 선호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건강하기를 바라고 많은 물질적인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고 우리에게서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가신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녀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기를 바랄 것이다. 딸을 둔 사람들은 그들이 교회 안에서 가장 좋은 형제와 결혼하기를 바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의 상황은 우리가 바라는 것과는 너무 다르게 변할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 이것에 대해 간구한다면 그분은 “너는 내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 모른다. 나는 이것이 마땅한 길임을 안다.”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아마 여러분은 이러한 문제들이 그리스도의 승천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승천은 분명 이러한 것들과 관계있다. 주님의 승천은 그분의 제사장 직분을 포함한다. 승천하신 분이로서 그분은 우리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보살피시는 대제사장이시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것이 좋은지는 우리가 해석할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해석하실 문제이다. 예를 들면, 당신은 새 차를 사면서 여러 해 동안 계속 쓰기를 바랄 것이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한 주님의 의견은 당신의 차가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내게 와서, “저는 새 차를 샀는데 몇 주 후에 부서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주님은 제가 사고 당할 것과 그 차가 부서질 것을 모르셨나요? 그분이 이것을 아셨다면 왜 제가 차를 사도록 놓아 두셨나요? 왜 그분은 나를 그만두게 하지 않으셨나요?”라고 말한다면, 물론 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주님만이 이유를 아신다. 그분이 대제사장이시다.

종종 자신의 상황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는 성도들의 편지를 받을 때, 나는 그 편지들을 한쪽에 치워 둔다. 내가 그러한 편지들을 한쪽에 치워 두는 것은 나는 대제사장이 아니며 성도들에 관하여 그분의 마음에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그러한 편지들에 대해 그분을 대신하여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 내가 무엇인가 말하려고 애쓴다면, 나는 성도들에게 실지로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오십 오 년 전에 그러한 상담을 받았을 때 나는 해 줄 말이 많았다. 아무것도 모르는 까닭에 나는 할 말이 많았으며 주께 많은 것을 말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더 많은 체험과 더 많은 지식을 얻게 된 지금은 말할 것이 거의 없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돌보심은 항상 적극적이라는 것이다. 어느 날 우리는 그분을 볼 것이고 그분을 경배할 것이다.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 “주 예수님, 저의 상황에 대해 당신께 불평한 것을 용서하소서. 이제 저는 저를 위한 당신의 뜻이 선하시다는 것을 압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 모두를 잘 돌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갈망을 관심함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와 우리의 복지만을 관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갈망을 관심하신다.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필요를 더 많이 관심하신다. 하나님은 등잔대들을 원하신다. 그러므로 주님은 하나님의 표현을 위해 등잔대들을 세우시며 등잔들의 심지를 손질하신다(계

1:13, 2:1). 이러한 일은 그분께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건축하시는 것을 포함한다. 주님은 지금 예수님의 살아 있는 증거를 건축하고 계신다.

신약의 집행자

하늘들에 있는 대제사장으로서 주님은 더 나은 언약의 보증과 중보자와 신약의 집행자이다. 히브리서 7장 22절은 “예수님은 또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것은 그분께서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에 근거한다. 히브리서 8장 6절은 우리에게 그분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한다. 더 나아가, 히브리서 9장 15절과 16절은 “이러므로 그분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언약 아래서 행한 위법들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름받은 사람들이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유언은 반드시 유언을 한 사람의 죽음이 있어야 확증됩니다.”라고 말한다.

15절에서 우리는 ‘언약’이라는 단어를 보고, 16절에서 ‘유언’이라는 단어를 본다. 헬라어로는 동일한 단어가 언약과 유언으로 사용되어 있다. 언약은 언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어떤 것들을 성취하겠다는 약속들이 수반된 계약인 반면, 유언은 무언가가 성취되어 상속자에게 유증된 유언장이다. 그리스도의 피로 완성된 새 언약은 단지 언약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성취되어 우리에게 유증된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유언이다. 먼저 하나님은 새 언약을 세우시리라는 약속을 하셨다(렘 31:31-34).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는 피를 흘리심으로 그 언약을 세우셨다(눅 22:20). 이 언약에서 약속된 것들은 성취된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유언이다. 이 유언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확증되고 유효하게 되었으며 이제 그리스도에 의해 그분의 승천 안에서 집행되고 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등잔대들을 세우고 계시며 등잔들의 심지를 정돈하고 계신다. 그분은 이렇게 세우시고 손질하시면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신약을 집행하고 계신다. 신약에는 많은 유산들이 있으며 이 모든 것은 교회들에게 유증된 신성한 축복들이다.

신약은 새 유언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신약은 우리의 유업을 위한 ‘새 유언’이다. 이 새로운 유언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분의 구속의 일을 포함하여 신성한 축복들을 유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 새로운 유언을 세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분은 이 새 유언을 세우기 위해 죽으셨다. 이제 그분께서 세우신 것은 모두 우리에게 유증되었고 우리에게 유효하다.

유언을 세우는 것과 그 안에 유증된 모든 것은 그 유언을 세우신 분의 죽음을 요구한다. 일단 그 유언을 세운 사람이 죽을 때, 그 유언 안에 있는 유산이 상속자들에게 유효하게 된다. 주님을 찬양하자! 그리스도는 죽으심으로 유언을 세우셨고, 이제 우리에게 유증된 그 유언의 살아 계신 집행자로서 하늘에 계신다! 그분은 어떻게 이 유언을 집행하시는가? 그분은 등잔대들인 교회들을 세우시고 모든 등잔들의 심지를 정돈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유언을 집행하신다.

바로 이 순간에도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등잔대들을 세우시고 등잔들의 심지를 정돈하고 계신다. 나는 심지가 정돈되어야 할 필요성이 많으므로 매일 그분의 정돈하심 아래 있음을 간증할 수 있다. 나는 또한 그분께서 지방 교회들 사이에 다니시는 것과 금등잔대들을 세우고 계신 것을 인식한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그분은 실질적인 방법으로 신약을 집행하며 수행하고 계신다. 신약의 모든 축복은 살아 계시고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신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에게 적용되는 유산이다. 이분이 승천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이다. 우리가 그분을 이렇게 누릴 수 있음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자!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은 새 예루살렘을 목표로 삼는다.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께서 승천 안에서 하시는 일의 완결일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분의 승천 안에서 일하고 계신 모든 것은 장차 올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다. (누가복음 라이프 스타디, 79장, 655-661쪽)